



경기센 F4, 대상 받다

축! 대상 수상!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래패 ‘밧데리’가 이용석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평택분회 안경주 패장, 이주용 조합원, 분당분회 길유림과 김호연 조합원은 각자의 매력을 모아 하나 된 아름다운 무대를 완성시켰다.



이용석 가요제는

“우리가 모인 이 자체가 노동자로서 승리입니다.”라는 유서를 남기며 2003년 10월 26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한 노동자가 있었다. 첫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비정규직 철폐연대가를 함께 부르던 중이었다.

이용석 가요제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음악을 통해 열사의 정신을 노래하고’, ‘이 땅의 모든 민중이 참가하여 함께 노래하는 것’을 꿈꾸며 2009년 시작됐다. 열사를 기리는 가요제에서 또다시 열사를 기억하는 노래를 불러야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지만, 그 노래에는 다시는 열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산 자들의 결의 역시 담겨있기에 슬프지만은 않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를 기억하며

“너의 뜻을 지킴으로써 무된 살아가니까. 너의 고귀한 선물을 영원히

기억할게. 그 날이 찾아오면 웃으며 안아줄게.” 안경주 패장은 “최종범, 염호석 열사에게 바치는 노래였다. 대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고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신 열사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어 다행이다. 대상은 열사에게 바친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길유림 조합원은 “다음 주에 또 해야 한다니.....”라며 익살스런 소감을 남겼고, 이주용 조합원은 “사실 태어나서 일등상을 처음 받았다. 연습 때 실수연발이라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완전 깜놀x100000.”라며 기뻐했다. 김호연 조합원은 “김호연 때문에 망쳤다 소리 안 들어 다행이었다. 얼떨결에 참여해 혹시나 망칠까 부담이 컸는데 노래패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겸손한 수상소감을 밝혔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구절의 노래가 더욱 가슴을 때릴 때가 있다. 밧데리의 노래 역시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악만큼 마음을 울리는 것도 또 없다. 앞으로도 ‘밧데리’가 모두의 밧데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을 파고드는 다양한 올림들을 함께 만들자.

대표님 이건 아니죠

해도해도 너무하네

지난 10월 29일, 서수원 센터 노조게시판이 훼손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의심반 진심반 흑시나 사장이 했을까 했는데 역시나였다. 게시판을 만들고 부착한 사람들의 수고와 이를 통한 노조의 활동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



단협에 명시가 되어있듯 회사는 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서수원 대표님은 트러블 메이커

서수원 안병훈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과 행동들을 해왔다. 하지만 서수원분회는 628 합의정신을 기억하고, 이후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꼭꼭 참고 인내하며 원활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경기남부권역은 임단협 조인식까지 마친 상태였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앞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기로 약속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병훈 대표가 단협 자체를 지킬 생각이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조합원들이 불났다!



사장의 이런 태도에 서수원 분회 조합원들은 긴급 회의를 가졌다.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우선 지금으로서는 조합원들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합의를 모았다. 그래서 대표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서명을 담아 연서를 보내기로 하였다. 만약 연서를 보낸 뒤에도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점점 더 수위를 높여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대표님께 드리는 조합원의 호소문

먼저 회사의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안병훈 대표께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서수원센터 분회 조합원들은 서수원 센터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착과 발전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표님께 본 호소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노사관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서수원의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노사가 더욱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노사관계를 해치는 상황과 조합원을 향한 불합리한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서수원센터 조합원 전체의 의지를 모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대표님께 호소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집단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사태가 오지 않기를 엄중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2014년 11월 3일

경기센들이 지켜보고 있다

3개 센터가 폐업됐을 때, 센들은 “우리가 이천이다, 우리가 아산이다, 우리가 해운대다!” 라고 외치며 투쟁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막인 것을 알기에, 경기센들은 푹푹 뭉쳐 싸운다. 지금도 경기센들은 지켜보고 있다. 서수원 대표는 하루빨리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합의정신을 기억하고, 단협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